

교육의 미래, 오류를 바로잡을 용기



김희석

칼럼

지금 교육계는 서논술형 평가를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필자는 1987년 학력고사를 치르고 대학에 진학했다. 모두 객관식으로 이뤄진 총 320점 만점의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가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기준이었다.

객관식, 즉 선택형 평가는 객관성과 효율성이라는 분명한 장점을 갖는다. 대규모 수험생의 실력을 짧은 시간에 평가할 수 있고,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도 적다. 하지만 미래의 인재를 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는가보다 이를 어떻게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해지고 있다. 정해진 답을 찾아내는 능력보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해결하며, 타인과 협력하는 역량이 요구된다. 서논술형 평가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다.

변화의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듯하다. 문제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있다. 수십만 명의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

지를 정해진 기간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채점할 수 있을까. 평가에 AI를 활용한다면 그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특히 AI 채점은 새로운 차원의 논란을 불러온다. AI를 활용하면 채점자 간 편차가 사라질 것인가. 모범답안과 표현은 다르지만 논리적으로 타당한 답변, 출제자가 예상하지 못한 창의적인 답변까지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정형화된 답변이 높은 점수를 받고 독창적인 사고가 불이익을 받는 역설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수시 원서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장애를 둘러싼 수험생들의 피해 주장과 형평성 논란만 보더라도 문제의 복잡성을 짐작할 수 있다. 비교적 명확한 절차를 다루는 시스템에서도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고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하물며 평가자의 판단과 해석이 개입하는 서논술형 평가에서는 얼마나 다양한 갈등이 빚어질 것인가.

그렇다고 이러한 우려가 변화를 미루거나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더욱 철저한 준비다. 평가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채점 과정의 일관성을 검증하며, AI와 인간 평가자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험생이 평가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이란 본래 배우는 과정이다. 배우다는 것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출발해 조금씩 완전해 가까워지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오류는 피할 수 없다. 학생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도, 교육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를 발견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일이다. 평가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의제기를 충분히 검토하며, 잘못된 판단은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AI가 평가에 참여한다면 그 판단의 근거를 검증하고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공정성이란 단순히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잣대가 타당한지 검증하고, 잘못 적용됐을 때 바로잡을 수 있다는 믿음까지 포함한다.

교육이 학생에게 요구하는 것도 결국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오류를 성찰하며,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자세일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제도 역시 그러한 원칙 위에서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 완벽한 제도를 약속하기보다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 그 공감대 위에서 교육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 그것이 미래 교육을 향한 변화의 출발점이다.

/vbkim11@metroseoul.co.kr

정치는 ‘막대사수’를 한다고 이기지 않는다



기지수첩

서예진
(정치부)

온라인상의 말싸움을 구경하다 보면 기묘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처음엔 나름의 주장과 근거가 오가지만, 몇 차례 뺏글을 주고 받다 보면 논점은 온데간데 없다. 상대가 한마디 하면 바로 한마디를 엮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꼬리를 말고 도망친’ 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뺏글을 남기는 사람이 이겼다고 믿는 ‘막대사수’다.

요즘 여권을 바라보면 이 오래된 현상이 떠오른다. 정책과 노선을 둘러싼 이견이 지지층 사이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정치인과 논객의 말이 다시 그 싸움의 소재가 된다.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를 두고도 이견이 분분하다. 다만 서로가 입을 모아 주장하는 것은 하

나다. “제가 먼저 그랬어요.”

먼저 공격받은 사람이 반박하는 것은 당연하다.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는 일도 필요하다. 그러나 반박할 권리가 끝없이 공격할 권리까지 뜻하지는 않는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려던 싸움이 어느 순간 ‘너 죽고 나 죽자’로 변한다면, 애초에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도 흐트해진다.

최근 검찰개혁과 인선 등을 둘러싼 여권의 충돌이 우려스러운 모양새로 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책을 직접 설명하고 비판에도 답하고 있다. 직접 소통은 분명 장점이 있다. 다만 대통령이 남긴 한 문장은 평범한 뺏글이 아니다. 정치권이 해석하고, 지지층이 의미를 부여하는 신호다. 대통령이 모든 사안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정치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논

객들도 예외는 아니다. 당적 보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말이 수많은 사람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면 표현의 수위 역시 돌아볼 일이다. 날카로운 비판과 상대를 향한 모욕은 같은 말이 아니다. 노선 경쟁이 사람에 대한 적대감으로 변하는 순간, 남는 것은 감정의 앙금 뿐이다.

정치에서 갈등이 사라질 수는 없다. 민주주의의 이견이 다른 사람들이 끝내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모두가 마지막 말을 사수하겠다고 나서면, 경쟁의 목적은 잊혀지고 분노만 남는다.

온라인 뺏글창에선 마지막 뺏글을 단 사람이 홀로 승리를 선언하면 그만이다. 정치판에서는 말싸움이 끝난 뒤에도 함께 풀어야 할 문제가 남는다. 그러니 이겨봤자 승리감은 3초면 사라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무의미한 승리다.

/syj@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4일 (음 9월 4일) 포춘토리(fortunetory.com)



취

48년생 남의 말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60년생** 여행을 각별히 조심하세요. **72년생** 배우자의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84년생**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하였습니다.



소

49년생 입조심하세요. **61년생** 큰 돈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73년생**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질 연인입니다. **85년생** 일처리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로랑어

50년생 가끔씩의 휴식은 약이 됩니다. **62년생** 언제까지 지난 일만 돌아볼 생각이십니까? **74년생** 재능이 부족한 탓을 부모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86년생** 오랜 친구가 배신합니다.



도끼

51년생 너무 많은 조심성은 해가 됩니다. **63년생** 돈 때문에 망신수가 있으니 근신하세요. **75년생** 큰 뜻을 펼치겠습니다. **87년생** 뜻이 원래하니 이를 알아주는 이들의 도움으로 명예가 생깁니다.



조

52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겠습니다. **64년생** 새로운 일을 하면 결과가 가히 창대할 것입니다. **76년생** 이상형의 직종을 만날 수 있습니다. **88년생** 빠른 시간에 화해하도록 하세요.



뱀

53년생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65년생** 성실한 삶의 자세가 빛을 보는 때입니다. **77년생** 남쪽에 있는 사람은 귀인입니다. **89년생** 잃어버린 물건이 서북 방에 떨어져 있습니다.



말

54년생 귀인의 도움이 있습니다. **66년생**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습니다. **78년생** 주변의 도움으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90년생** 불의의 사고가 우려되니 경망된 행동은 삼가해야겠습니다.



양

55년생 집안에 불길한 기운이 감돕니다. **67년생** 모든일이 어수선하고 불길합니다. **79년생** 외출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1년생**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분위기입니다.



원숭이

56년생 벌리고 있는 업종이 불황을 만났습니다. **68년생** 자본줄이 막히게 됩니다. **80년생** 동쪽부근에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92년생** 시간을 내어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세요.



닭

57년생 방향을 하게 됩니다. **69년생** 어렵거나 잘 안 풀려도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81년생** 시비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93년생** 능력 있는 뒷사람을 만나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개

58년생 구설수가 따를 것이니 사람과의 교제를 잘하세요. **70년생** 이익이 같이 들어오니 도처에서 봄바람이 불니다. **82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94년생** 이익이 되는 곳은 동쪽입니다.



돼지

59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오고 성취될 것입니다. **71년생** 여러 일을 하는 것은 무리일수 밖에 없습니다. **83년생** 이직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95년생** 소박한 소원을 바라는 것이 유익합니다.



김상회의四季

춧불 연가

뉴스를 보다 보니 여수의 바다를 배경으로 책을 읽고 영화를 감상하며 수천 개의 춧불 아래 음악을 즐기는 가을밤 축제가 열렸다. 상상만해도 가을 밤바다를 배경으로 반짝이는 춧불 향연이 장관일 듯하다. 어디 그뿐인가? 춧불은 단순히 작은 인공조명을 뛰어넘는 서사를 지녔다. 춧불은 평안과 쉼을 느끼게도 하지만 경건함에 마음을 수렴하게 한다. 춧불의 매력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인류가 초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동양과 서양 중 어느 지역에서 춧불을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것일까? 고대 사람들은 해가 지고 난 후 어둠을 밝히기 위해 나무에 불을 붙인 횃불을 사용했을 것이지만 불붙은 심지를 사용하여 등불을 밝히기 시작한 것이나 말뚝이나 와스를 재료로 하는 초의 역사는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시적인 호롱은 구석기 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신석기 시대의 도기와 돌로 만든 등불이 발견된 까닭이다. 양초의 경우 역시 언제 어디서 처음 사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바빌로니아와 중기 미노아 문화 그리고 기원전 삼천 년을 뛰어넘는 투탕카멘의 무덤에서도 춧대로 추정되는 물건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인공조명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초의 기원은 문명의 발달을 알려주는 척도이기도 하다. 호롱불이나 등불을 사용하는 것도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았다. 특히 밀랍 양초는 중세 때까지만 해도 부유층 사이에서 고급 가정용품으로 사용되었기에 일반 서민들은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행사 때가 아니면 사용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춧불은 꿈 해석에서도 종종 등장하는데,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기에 춧불이 밝게 타는 꿈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근심·걱정이 사라진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반대로 춧불이 꺼지거나 한다면 상실이나 이별 등을 암시한다고 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12호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16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